# SER, ESTAR 동사 선별에 관한 연구*

**서소영**
(전북대학교)

**Seo, SoYoung. 2011.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verbs SER & ESTAR.**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169-184. In the traditional grammar, the constructions with the verbs SER & ESTAR have been analyzed by the properties of the predicates (RAE, 1973). However, these studies can't explain various examples of the copulative construction in Spanish and the students suffer difficulties to learn it. That it to say, the education of the verbs SER, ESTAR based on this point of view shows many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the copulative constructions, and to apply that reanalysis to the education of the grammar. In this study, I propos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pulative constructions in Spanish don't be derived from the properties of the predicates but from the feature EVENT, to be exact, that feature influences to the selection of the copulative constructions. Under this view, the feature EVENT transforms Individual-Level predicates into Stage-Level predicates.

**Key Words:** the traditional grammar, the verbs SER & ESTAR, the predicate, the copulative constructions, the feature EVENT, Individual-Level predicates, Stage-Level predicates.

## 1. 서론 및 목적

영어의 be 동사 술부 구문은 스페인어에서 ser, estar 두 동사 구문으로 구별된다. 스페인 전통 문법에서부터 이 두 동사는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RAE 1973), 이러한 관점 내에서 ser 동사는 주로 estar 동사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 즉 실제상의 변화, 개체로서의 자질을 의미할 때는 estar 동사가 사용되며 이와 반대로 이동이나 변화와는 무관한 자질을 표현할 때는 ser 동사가 도입된다고 봤다. 즉, 술부의 의미적 차원에서 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구문을 분석하고자 했고 이러한 관점은 국내외 대부분의 스페인어 문법 교재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관련 분석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술부 의미에 근거한 분류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사 구문에서 ser, estar 동사 선별에 시간적 제한요소, 주어 자질 및 시제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관점에 근거한 강의 교재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술부적 특성에만 의존하는 강의를 진행하다보면 스페인어에 직관이 없는 한국 학생들은 이를 한국어 해석에 의존해서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 구문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스페인어 전통적 개념 하에 ser, estar 계사 구문을 습득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관련 문법 습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 2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ser, estar 동사 구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의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1. 스페인어 ser, estar 동사 구문 종류

스페인어 ser, estar 계사 구문은 구조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 두 동사 구문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은 언급한 구문에 출현하는 형용사 술부가 내포하는 의미적 자질이다. 즉, 형용사에 의해 표현된 자질을 주어에 부여할 때 동사는 ser 혹은 estar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술부가 주어에 영구적 속성을 부여할 때 ser 동사가 사용되며, 한정된 순간에 일어난 상황을 의미할 때 즉 가변적인 상황에서는 estar 동사를 쓴다. 예를 들어, 색깔, 형식, 크기, 국적, 종교와 같이 본질적인 부분은 ser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1) ¿Cómo es tu hermano? 'How is your brother?'
- Es bajo, delgado y muy simpático. '(He) is low, thin and very kind'
- Pedro es arquitecto, ¿no? No, es ingeniero.
'Pedro is architect, ¿no? No, (he) is engineer'

반면에 estar 동사는 한정된 순간에 일어난 상황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a. Hoy está más animado que ayer.
'Today is more encouraged that yesterday'
b. Está bastante recuperado. '(He) is sufficiently recuperated'

c. El cielo está gris. 'The sky is grey'
d. Este café está demasiado amargo. 'This coffee is too much bitter'
(Yolanda & María, 1991, p.304)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다음 두 질문은 서로 다른 내용을 내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a. ¿Cómo es Pedro? 'How is Pedro?'
b. ¿Cómo está Pedro? 'How is Pedro?'

(3a)의 경우 질문한 화자가 주어 (Pedro)에 관한 묘사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되는 반면 (3b)에서는 주어 (Pedro)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도입되는 문이다.

이러한 형용사 술부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스페인어 형용사 부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Marín, 2004).

첫째, ser 동사와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들로 cauto, constante, cuidadoso, cortés, leal, prudente, capaz, discreto, justo, mortal, noble, inteligente, llevadero, odioso, sabio...etc.가 있다.

둘째, estar 동사와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들로 absorto, ausente, borracho, contento, desnudo, descalzo, deseoso, enfermo, harto, lleno, maltrecho, perplejo, presente, quieto, solo, vacío...etc.가 있다.

셋째, ser와 estar 동사 구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들로 alegre, alto, amplio, normal, bajo, estrecho, feliz, feo, flaco, gordo, grande, hermoso, inquieto, joven, libre, nervioso, pequeño, orgulloso, tranquilo, viejo, vivo...etc.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실제로 명확히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습득할 때 다소 혼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위 구분에서 형용사 *inteligente*는 일반적으로 ser 동사와 사용되는 것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문에 일시적 속성을 나타내주는 다른 요소가 존재할 때에는 estar 동사와도 역시 함께 쓰일 수 있다.

(4) Qué inteligentes están hoy mis alumnos! 'How intelligent are today my students!'

즉, '오늘(hoy)'이라는 일시적 속성을 가리키는 시간적 제한이 올 때 *inteligente* 형용사는 estar 동사와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문은 보어 즉 술부의 형태에 따라 혹은 의미를 제한해주는 요소의 출현으로 인해 ser와 estar 동사 선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제 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간되어진 대부분

의 문법책들은 이러한 스페인 전통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ser, estar 동사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각각의 술부가 지니는 영구적 속성 혹은 일시적 상태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사 구문을 제시할 경우 혼동을 겪게 되고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여러 형태의 계사구문들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2. 스페인어 ser, estar 동사 구문 습득에 관한 자료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되는 계사동사는 스페인어에서 ser, estar 동사로 분류된다. 계사동사가 외현적으로 결여되거나 혹은 -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스페인어의 계사 구문은 다소 복잡해 보이며 이 두 동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ser, estar 계사 동사를 문법적으로 습득한 학생들이 어떻게 관련 구문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습득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찰 대상으로서 2년 정도 스페인어 문법을 배운 중급 스페인어 수강 학생 38명을 선정하여 이들이 관련 계사 구문을 어떻게 습득하고 인지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ser, estar 동사의 특성 및 구문들을 이미 습득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예문들을 제시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ser, estar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술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 문장들을 스페인어로 작문해보도록 유도하고 각각의 형용사들이 ser, estar 중 어떤 동사와 사용 가능한지 혹은 둘 다 모두 허용하는 술부는 어떤 것인지 구별하도록 했다.

(5) a. Juan은 신중한 (prudente) 편이다.
b. Pedro는 술에 취했다 (borracho).
c. Juan은 착실하다 (constante).

(6) 다음 형용사들 중 ser 혹은 estar 동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둘 다 허용할 수 있는지 구별하여 표하시오.

- cuidadoso 'careful'( ), contento 'satisfied'( ), lleno 'filled'( ), desnudo 'naked' ( ), harto 'satiated'( ), capaz 'capable'( ), discreto 'prudent'( ) mortal 'mortal'( ), odioso 'odious'( ), alegre 'glad'( ), alto 'tall'( )
amplio 'wide'( ), noble 'noble'( ), estrecho 'narrow'( ), grande 'big'( ) orgulloso 'proud'( ), libre 'free'( ), viejo 'old'( ). feo 'ugly'( )

둘째, ser, estar 동사 구문에 부가어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예문들을 제시했다.

(7) a. 내 비서는 일주일 내내 자리를 비운다 (ausente).
b. Juan ( ) hoy muy español.
'Juan ( ) today very spanish'
c. Los peores alumnos de la clase ( ) hoy muy inteligentes.
'The worst students of the class ( ) today very intelligents'

셋째, 과거분사, 현재분사 등의 문법 요소가 ser, estar 동사 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다음의 예문들을 제시했다.

(8) a. Juan ( ) estudiando inglés. 'Juan ( ) studying english'
b. Juan ( ) herido./ fastidiado./ escrito.
c. Raquel ( ) querido./ aborrecido./ estimado.

마지막으로 시제가 ser, estar 동사 선별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문들을 제시했다.

(9) a. La puerta es abierta por el portero. (맞는 문장에 표하시오)
La puerta había sido cerrada.
b. Las casas han estado edificadas con mucho cuidado. (맞는 문에 표할 것)
Las casas han sido edificadas con mucho cuidado.

위의 예문들을 38명의 중급 스페인어 수강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

먼저 기본적인 술부 특성을 묻는 (5) 질문에 관하여 전체 학생수 38명 가운데 단지 9명만이 3문항 중 일부 문항을 혼돈하여 사용했을 뿐 나머지 29명 학생들은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이는 일시적 속성을 표현해주는 술부는 estar 동사와 사용되며 영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술부는 ser 동사와 같이 온다는 기본적 개념을 습득한 상태에서 *prudente, borracho, constante* 등과 같이 보다 그 술부적 특성이 명확한 경우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술부 보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ser, estar 동사 선택을 묻는 (6) 유형의 질문에는 전체 학생 중 어느 학생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했다. 구체적으

로, *contento*, *lleno*의 경우는 전체 학생 수 가운데 단지 7명만이 틀린 답을 제시한 반면 *cuidadoso*는 25명이, *desnudo*는 24명, *odioso*는 25명이 잘못된 답변을 썼다. *mortal*의 경우는 21명, *harto*는 20명, *capaz*는 19명, *discreto*는 18명, *noble*는 17명 등으로 잘못된 답을 제시했다. 그러나 ser, estar 모두 가능한 경우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다. 즉, *alegre*(30명), *alto*(32명), *amplio*(35명), *estrecho*(35명), *grande*(33명), *orgulloso*(35명), *libre*(25명), *viejo*(26명), *feo*(33명) 등으로 잘못된 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ser, estar를 각각 구별하는 것 보다 이 두 동사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시간적 제한을 나타내는 부가어가 ser, estar 동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예문들을 학생들에게 적용해봄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언급한 자료들은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부가어 즉 시간적 제한 요소가 등장할 때 estar 동사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보기위한 것인데, 예문 (7a)의 경우 11명, (7b)는 10명, (7c)는 7명이 잘못된 답을 적었다. 이는 술부 형용사의 상적 특징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등장하는 시간적 제한 요소도 ser, estar 동사 선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의에 적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toda la semana*, *hoy*...등과 같은 시간적 제한과 estar 동사 선별 간의 연계성에 관해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분사, 현재분사 등의 문법 요소가 ser, estar 동사 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제시한 예문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8a) 예문의 경우 12명이, (8b)는 3명이, (8c)는 11명이 잘못된 답을 적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8a) 예문이다. 현재분사는 일시적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estar 동사와 조합 가능하지만 ser 동사와는 같이 사용될 수 없는데 38명의 수강생 중 12명의 학생이 ser 동사를 선별해서 사용했다는 점은 단순한 ser, estar 술부 구문을 진행형으로 변형시켰을 때 다소 혼동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즉 진행형의 기본 의미와 estar 동사간의 연계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문 (8b, c)와 같이 ser, estar 동사와 과거분사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 역시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어 문법에서 estar 동사의 완료적 특성, 일시적 상태 등의 의미로 인해 완료동사의 과거분사는 estar 동사와 함께 사용가능하다 (예문 8b). 반면에 불 완료 동사의 과거분사의 경우 그 의미적 속성으로 인해 ser 동사와 더불어 사용된다(8c). 이와 같이 ser 동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 완료의미는 사라지게 되며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적 상관관계를 반드시 강의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제가 ser, estar 동사 선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들에 관해 학생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료들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경우에 시제와 ser, estar 동사 간에 연계성을 설정하기 보다는 두 동사의 술부 차이점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9a)의 경우 17명의 학생이 그리고 (9b)의 경우 19명의 학생이 오답

을 적었다. 일반적으로 ser 동사는 불 완료 의미를 표현하며 estar 동사는 완료속성을 나타내지만 두 문장 모두 완료 시제를 쓸 경우 두 동사 구문 간의 차이점은 희미해지는데 이는 문의 시제와 ser, estar 동사 간의 선별 문제 등이 서로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제적 측면은 ser, estar 동사의 상적 측면을 배운 학생에게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ser, estar 동사 구문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두 동사의 술부적 특성이외에도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위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ser 동사는 영구적 속성을 내포하는 반면 estar 동사는 어떠한 상황에 한정된 일시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것으로 정의해주고 관련 술부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일반적 수업내용은 다소 한계가 있고 관련 구문을 온전하게 습득하는 데 불충분 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인어와 달리 ser, estar 두 동사로 구별되지 않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다양한 관련 구문을 습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시제가 ser, estar 구문에 미치는 영향과 두 동사가 현재분사, 과거분사 등의 형태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등의 문제는 스페인어 계사 구문이 지니는 상적 의미이외에 추가적으로 강의 시간에 반드시 보충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로 스페인어 기초 문법, 중급 문법 등에서 ser, estar 동사와 술부 간의 상적 특성 등을 강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시제와 두 동사 선별 간에 설정되는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다음에서 우리는 ser, estar 구문에 나타나는 구문적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강의에 적용하기 위한 통사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ser, estar 동사 선별을 위한 효과적 문법 교육

전통 문법적 관점에서 ser, estar 동사 구문을 강의할 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영속성을 의미하는 ser 동사는 어떤 상황에 개의치 않는 영구적 속성을 내포하는 반면 estar 동사는 어떤 상황에 한정된 일시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a. Juan es discreto. 'Juan is prudent'
b. *Juan está discreto' 'Juan is prudent'

위 예문에서 형용사 discreto는 영구적 속성을 지니므로 ser 동사와 어울리며 estar동사와는

같이 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Yolanda & María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전통적 개념은 다음 예문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11) Mi abuelo está vivo/ muerto. 'My grandfather is alive/died'

위 예문에서 술부 vivo와 muerto는 영구적 자질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estar 동사와 사용이 가능하나 ser 동사와는 같이 올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은 상 (Aspect) 개념의 도입이다 (cf. Luján, 1981, Hernanz, 1988, Schmitt, 1992). 즉 estar 동사는 어떤 '변형의 결과'로 인지되므로 완료상을 지니며, ser 동사는 '지속' 혹은 '영구적 속성'을 표현하므로 불 완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

(12) a. El vaso de agua es amarillo. 'The cup of water is yellow'
b. El vaso de agua está roto. 'The cup of water is broken'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ser나 estar 동사는 다른 일반 상 동사들과 달리 행위가 아니라 주어의 자질을 표현해준다.[2)] 이러한 관점 내에서 Schmitt (1992)는 ser 동사는 고유한 시제 구조를 결여함으로써 어떠한 상태에 해당되는 개념을 내포하지 못하는 반면 estar 동사는 상의 속성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술부의 의미적 특성, 상적 특성에 따라 단순히 문장들을 분류하는 문법 교육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다양한 계사 구문 형태를 살펴볼 때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ser, estar 동사 술부 이외에도 시간적 제한 등 몇몇 부가어들은 동사 선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ser, estar 동사 선별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Carlson (1977), Kratzer(1988) 등이 제시한 의미적 술부 개념을 가정하기로 한다. 언급한 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술부들은 의미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형태는 Stage-Level 술

---

1) 실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고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다음 예문 역시 가능하다.

(a) El vaso de agua está intacto.
'The cup of water is intact'

2) 일반 동사들 중 제한된 지속 행위가 완료, 끝에 이르게 될 때 '완료'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disparar ('to shoot', 'fire') 동사의 경우 행위가 완료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위가 끝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완료는 행위 끝에 이를 필요가 없는 지속 행위를 표현해준다. 예를 들어, querer ('want', 'wish'), saber ('know'), conocer ('know'), respetar ('respect')...etc.

부이며 두 번째 부류는 Individual-Level 술부에 해당된다. 이 중 전자에 해당되는 술부는 주어의 일시적 속성을 나타내주는 반면 후자에 속한 술부는 주어의 영구적 속성을 표현해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론적 관점 내에서 Kratzer (1988)는 Stage-Level 술부는 events를 위한 추가적 논항 위치를 수반하는 반면 Individual-Level 술부는 이를 결여한다는 점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술부에 관한 의미적 개념을 스페인어의 ser, estar 동사 구문에 적용하고자 한다. 스페인어에서 ser 동사 구문들이 영구적 속성을 의미하는 반면 estar 동사 구문들은 일시적 상태를 뜻하는데 이와 같이 순간적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 문은 event 속성을 수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event 개념에 근거하여 ser, estar 동사 구문들을 교육하고자 할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먼저 ser 동사와 estar 동사 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ser 동사가 두 명사구를 연결해줄 수 있는 반면 estar 동사는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한다.

(13) a. El culpable es Pedro. 'The culprit is Pedro'
b. *El culpable está Pedro.'The culprit is Pedro'

즉, event 속성을 지니는 estar 동사는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해주지 못한다. 반면에 문에 아무런 event 요소도 존재하지 않고 ser 동사 자체도 event 자질을 내포하지 않으므로 (13a)와 같은 문장은 정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의 장소 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vent 자질이 있는 estar 동사는 장소 문에 사용됨으로써 Stage-Level 술부를 유도하는 반면 이를 결여하는 ser 동사는 일반 장소 문에 도입될 수 없다.

(14) a. Juan está en el jardín. 'Juan is in the garden'
b. *Juan es en el jardín. 'Juan is in the garden'

이러한 자료들은 스페인어의 estar 동사가 ser 동사와 달리 event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estar 동사는 event 자질을 내포하므로 자신의 술부 보어와 event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Marín (2004)이 제시한 형용사 부류에서 estar 동사와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들은 동사와 술부 간에 event 일치를 이루므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event를 결여하는 ser 동사는 event 속성이 없는 형용사 보어와 일치관계를 형성하면서 문을 유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ser와 estar 동사 구문에 모두 사용 가능한 형용사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alegre, alto, amplio, normal, bajo, estrecho, feliz, feo, flaco, gordo, grande, hermoso, inquieto, joven, libre, nervioso, pequeño, orgulloso, tranquilo, viejo, vivo*...etc. 형용사 보어들은 ser, estar 동사와 같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보

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estar 동사가 수반하는 event 자질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하는 바대로 언급한 형용사 부류들은 ser 동사와 사용될 때에는 event 자질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반면 estar 동사와 같이 오게 될 경우에는 estar 동사의 event 속성으로 인해 event 자질을 지니게 된다. 즉, estar 동사가 수반하는 event 자질은 Individual-Level 술부를 Stage-Level 술부로 변형시켜주는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event 요소가 Individual-Level 술부를 Stage-Level 술부로 변형시킨다는 점은 다음의 술부 보어 구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3)]

(15) Carlos regresa cansado.
'Carlos regress tired'
(16) Carlos juzga complicados los problemas.
'Carlos judges complicated the problems'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스페인어의 estar 동사 역시 event 자질 표시로서 event 술부와 의미적 일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Stage-Level 술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Individual-Level 술부를 Stage-Level 술부로 뒤바꿔주는 기능 역시 수행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event 자질 표시로서 estar 동사가 수반하는 의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문법적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와의 조합 가능성에 관해 ser 동사의 경우 현재 분사 형태를 수반하지 못한다. 반면에 estar 동사는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 event 요소가 Individual-Level 술부 구문을 Stage-Level 술부 구문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은 다음의 한국어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a). 내 동생은 종종 고기를 날-로 먹는다.
(b). 내 친구는 지쳐-서 도착하-였-다.
(c). 영희-는 의사-로 돌아왔-다.
(c'). *영희-는 의사 돌아왔-다.
(d). ?영희-는 예뻐-서 돌아왔-다.
(e). ?*영희-는 예뻐 돌아왔다. (Choi, 1994, p.160)

위 예문에서, 조사 로/서는 Stage-Level 술부 구문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된 event 자질 표시로 이해되는데 이는 다음의 특성들에 근거한다 (Choi, 1994). 즉, 언급한 조사 로/서는 event 자질이 나타나는 술부에만 형태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남으로써 Stage-Level 술부만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밖에 event 자질을 결여하는 술부가 나타날 경우에 언급한 조사는 Individual-Level 술부를 Stage-Level 술부로 전환시켜주는 능력을 또한 수반한다.

(17) a. Juan está estudiando inglés. 'Juan is studying english'
b. *Juan es estudiando inglés. 'Juan is studying english'

이러한 대조는 event 자질에 근거해볼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event 속성을 지니는 estar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내포하는 현재 분사와 의미적으로 부합될 수 있지만 이를 결여하는 ser 동사는 일시적 상황 진행을 의미하는 이러한 문법 요소와 의미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올 수 없다. 과거분사와 관련해서는 ser 동사가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event 자질을 지니는 estar 동사는 이전 행위의 결과를 표현해준다 (Yolanda & María, 1991).

(18) a. Las casas eran edificadas con mucho cuidado.
'The houses were built carefully'
b. Las casas estaban edificadas con mucho cuidado.

위 두 예문에서 (18a)는 건설된 순간을 의미하는 반면 (18b)는 그 건설이 완료된 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법 상 차이로 인해, ser 구문의 경우 수동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과거분사의 완료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 a. Juan está herido./ fastidiado./ escrito.
b. Raquel es querido./ aborrecido./ estimado.

event 자질을 결여하는 ser 동사 구문의 특성으로 인해 완료동사의 순간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스페인어에서 ser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형은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직설법 형태로 쓰인다 (RAE, 1973).

(20) a. *La puerta es abierta por el portero.
b. *La hoja era vuelta por el lector.
(21) a. El portero abre la puerta. 'The doorman open the door.
b. El lector volvía la hoja. 'The reader return the page'

위 자료가 보여주듯이, 완료동사의 순간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 (20a, b)와 같은 수동형은 사용되지 않으며 능동 형태인 (21a, b) 구조가 사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에서 ser와 estar 동사 중 적합한 동사를 선별하는 것은 이들 각각의 동사들이 수반 혹은 결여하는 event 자질에 근거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구문들에서는 ser, estar의 event 속성보다는 문에 도입되는 다

른 event 요소로 인해 문이 결정지어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 1.1에서 이미 제시했고 본 고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음의 예문들에서 사용된 보어들은 일반적으로 본질적 속성을 의미하므로 ser 동사를 수반하지만 부가어 즉 시간적 제한 표시가 나오는 경우 estar 동사를 사용하게 된다.

(22) a. Juan está hoy muy español.
'Juan is today very spanish'
b. Los peores alumnos de la clase está hoy muy inteligentes.
'The worst students of the class is today very intelligents'

이와 같은 시간적 개념 즉 부가어들이 문에 도입됨으로써 동사 선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구문들에 나타나는 부가어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문을 event 구문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요소로 가정한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을 영어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3) a. Suddenly, I knew the answer.
b. John played the sonata for eight hours.
(Escandell-Vidal & Leonetti, 2002, p. 8)

위 예문 (23a)에서 술부 *know the answer*의 stative 속성과 부사 *suddenly* 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불일치는 state를 event로 뒤바꿔줌으로써 해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 (23b)에서 *play the sonata*와 같은 event 술부는 시간 부사인 *for eight hours*와 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단지 반복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언급한 event 술부가 재해석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event 개념 하에 스페인어 계사 구문에서 event 속성을 지니는 *hoy*와 같은 시간적 제한 표시가 나타남으로써 *inteligentes*와 같이 영구적 자질을 내포하는 보어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estar 동사를 선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ser, estar 완료 구문을 살펴보면, event 속성을 결여하는 ser 동사가 불 완료를 나타내고 이를 수반하는 estar 동사가 완료를 의미하지만 완료 시제를 쓸 경우 두 동사 간에 차이점이 희석되고 약화되는데 이는 완료 시제 자체가 event 의미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즉, event 자질을 결여하는 ser 동사와 event 속성을 지니는 완료 시제는 의미적으로 서로 불일치하므로 ser 동사가 완료 시제를 취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 완료 의미는 약화된다. 관련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 a. La boda fue muy lucida. 'The wedding was splendid'
b. La boda estuvo muy lucida. 'The wedding was splendid'
c. El tiempo ha sido lluvioso. 'The weather has been rainy'
d. El tiempo ha estado lluvioso. 'The weather has been rainy'
(Gili Gaya, 1979, pp.44-48)

이러한 구문들에서 완료, 불 완료 차이를 인지하기는 어렵다. 즉 예문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event 속성과 관련하여 ser, estar 동사 간에 의미적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약화된다. ser, estar 구별이 약해지는 정도는 형용사 의미와 각 표현의 특정 상황에 의존한다. 실제로 예문 (24d)에서 *ha estado* 시제 형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ser 동사 구문 (*ha sido*) 역시 완료시제 특성상 완료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법적 시제가 주는 특성으로 인해 완료시제의 경우 모든 부류의 동사가 ser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언급한 바대로 시제에 의해 표현된 완료 의미가 ser 동사의 불 완료 의미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4]

(25) La puerta había sido cerrada. 'The door had been closed'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estar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문은 결국 haber sido + 과거분사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Yolanda & María ( 1991)가 지적하고 있듯이 다음 예문 (26)은 예문 (27)로 표현될 수 있다.

(26) a. Ha sido resuelto. 'Have been resolved'
b. Había sido resuelto. 'Had been resolved'
c. Habrá o haya sido resuelto. '(Will) have been resolved'
(27) a. Está resuelto. 'Is resolved'
b. Estaba resuelto. 'Is resolved'
c. Estará resuelto. '(Will) be resolved'

---

4) 스페인어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직설법 현재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현재형은 취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과거에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준다. 따라서 완료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료상을 표현하는 동사라 할지라도 ser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형을 취할 수 있다.

(a) Napoleón es derrotado en Waterloo.
(Yolanda & María, 1991, p.308)

위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estar resuelto*는 *haber sido resuelto*의 결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자료들은 ser의 불 완료적 특징, estar 동사의 완료적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ser 동사가 완료 시제와 더불어 시제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의 완료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estar 동사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표현하게 된다. 즉 시제는 ser, estar 동사 구문 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제적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어에서 estar + 과거분사 형태는 그 자체로 완료의미를 함축하므로 완료시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28) a. *Las casas han estado edificados.
b. *Las casas habían estado edificados.
c. *Las casas habrán o hubiesen estado edificados.

즉 위 예문이 보여주듯이 event 자질을 지니는 estar 동사 자체가 완료 의미를 지니므로 완료 속성을 부가해주는 완료 시제는 잉여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ser, estar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event 속성의 일치 관계에 근거할 때 학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절한 동사 형태를 선별하게 된다.

## 3. 결론

스페인어 ser, estar 동사 구문은 기본 동사구로서 기초 스페인어, 중급 스페인어 등 일반 문법 과목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강의되는 문법 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내외 강의 용 문법서들이 전통적 관점에 근거하여 ser, estar 동사의 의미적 속성과 술부의 의미적 속성의 일치 문제에 치중해서 편성되다보니 몇 가지 한계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일반 전통적 정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스페인어 계사구문에 동사, 술부 간의 의미적 측면 이외에 시간적 제한 표현, 구문적 표현들, 시제 문제 등 다양하게 ser, estar 동사 선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 기초, 중급 문법을 습득한 학생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기본 개념에 충실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등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계사 동사 강의에 어떻게 보완,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계사구문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우리는 event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각각의 구문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ser, estar 동사가 수반하는 술부의 특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event 속성 그리고 문에서 동사와 의미적 일치 혹은 불일치 관계를 형성하는 event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우리의 관점 내에서 볼 때 ser 동사와

달리 estar 동사가 두 명사구를 연결하지 못하고 단지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하는 것과 장소 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estar 동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event 자질 때문이다. 이러한 event 속성은 estar 자체의 속성으로 문에서 보어 선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적 제한과 같은 부가어들 역시 event 요소로서 ser, estar 동사 선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계사 구문에서 사용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완료 시제 등 문법적 현상들도 ser, estar 동사 간에 설정되는 event 개념에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Carlson, G.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New York, Garland.

Choi, J. H. (1994). *La predicación en la teoría sintáctica*, Doctoral dissertation, Univ. Complutense de Madrid.

Gili Gaya, S. (1979).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Madrid, Edaf.

Hernanz, M. L. (1988). En torno a la sintaxis y semántica de los complementos predicativos en español. *Estudi General, 8,* 1-23.

Kratzer, A. (1988).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Unpublished manuscript.

Luján, M. (1981). The Spanish copulas as aspectual indicators, *Lingua, 54,* 165-210.

Marín, R.(2004). *Entre SER y ESTAR*, Madrid, Arco Libros.

Real Academia Española.(RAE)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Schmitt, C. (1992). SER and ESTAR: A matter of aspect, *NELS, 22.* 411-425.

Victoria, E-V. & Manuel, L. (2002). *Coercion and the stage/individual distinction*, Unpublished manuscript.

Yolanda, C, C. & María, A, S, R.(1991). Usos de SER y ESTAR. Revisión de la gramática y constatación de la realidad lingüística, *ASELE*, Actas III, Centro virtual Cervantes.

**서소영**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스페인, 중남미 어문학과
전화: (063) 270-3279
이메일: soyoungseo@chonbuk.ac.kr

Received on 10 June,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29 August, 2011
Accepted on 29 August, 2011